

來日을 向한 學校圖書館의 座標

趙 基 弘
大田聖母女子高校

교육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든지간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원만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일이라고 하는에는 뜻을 달리하지 않을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물질적인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잘살며 그 내면생활을 풍부하게 하여 인간으로 의의있고 가치높은 보람찬 일생을 살 수 있게 도움을 주며 그가 일원으로 속해있는 사회(국가 세계를 포함한)와 일치감을 가지고 그에 공헌함으로써 보다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이른바 민주적 시민으로 형성하는데 이바지하는 일이라고 하겠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가 일원으로 속해있는 사회의 시간적 관점에서 살펴 보고져 한다.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다음세대>라고 부르는데 그 까닭은 그들의 활동무대가 대체로 지금으로부터 20년 뒤에 등장하게 될 것이다. 즉 오늘의 피교육자의 세대는 금세기말경의 사회를 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시간적 겨냥은 다음 세대가 주인공이 되어 살고 활동할 때에 주력이 기울려져야 할 것이다. 교육에 있어서 시간이란 대단히 중요한 초점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근자에 와서 그 변화의 속도는 날날만치 급격해 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피부로 실감하는 일이다. 과학과 공업기술의 발달은 실로 눈부신 것으로서 우리를 황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방식을 전적으로 개변시켰고 사고방식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개혁을 초래하게 하였다. 이러한 우리세대에 일어난 변동은 다음세대에 가서는 더 크게 나타날 것은 명백한 일이며 현재의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혁신을 몰고 올 것으로 본다. 이처럼 심하게 변화하는 때를 맞아 우리는 머지않아 당면해야 할 몇가지의 문제가 있다. 그 하나가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과 주택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인구를 3천5백만으로 집계하는데 만일 연 2%의 인구증가률로 본다면 35년 뒤에는 이것이 배가되어 7천만 국민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해마다 풍년을 누린다해도 7천만국민이 소비

할 식량을 생산하기란 현재의 우리의 국토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한다. 다음은 최근에 와서 갑자기 나타나고 있는 여러가지의 공해문제이다. 경제발달과 더불어 당하기 시작한 이 공해문제는 날이 갈수록 그 심각도를 더해 갈 뿐이다. 세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경제성장에서 오는 사회문제이다. 청소년의 탈선, 성 개방 문제, 노인문제, 층, 호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교통의 지옥화 등등 여러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속에 살고 있는데 하물며 다음 세대가 주역이 될 그 시대에 있어서는 얼마나 심각해 질 것인가. 교육은 바로 여기에 겨냥하여 다음에 오는 세대들에게 확고한 가치관을 세워주는 것을 사명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의 교육은 어떠한가? 시간에 대한 감각이나 변화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학생 하나가 탈선행위를 저질렀다고 학교장이 자리를 물러나야 하는 근시안적이고 지시일변도의 교육행정.

인성형성에 앞서 일류학교의 진학만이 위주로 되어 있는 지식 주입의 교육, 말로만 장래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무비판적인 교육은 지식의 전달과 수정없는 생활양식, 사고방식과 가치관만을 물려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전통본위의 고식적 교육은 과거에 있어서는 유효한 것인지는 모르나 적어도 오늘의 교육에 있어서는 개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다음세대가 맞이할 내일의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을 오늘에 실시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내일의 사회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들여다 보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나 오늘의 동향으로 어느 정도 다가올 내일을 추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일을 바라보는 교육을 위해서 교육구조의 혁신이 있어야 하겠다.

학교도서관은 오늘의 학교교육을 혁신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내일의 사회를 올바르게 투영시킬 수 있는 기구가 바로 학교도서관이라고 본다. 도서관은 공

간적으로는 양의 등과 서, 우리가 살고있는 지구와 천체, 또 시간적으로는 창세기시대로부터 영원한 미래까지를 압축시켜 집결시킨 축소된 우주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네 학교도서관이 과연 내일을 향한 학교교육의 주체로서의 구실을 하고 있으며 격변하는 사회와 급진하는 문화를 제대로 투영시켜주고 있을까? 오늘 학교도서관의 기능발휘는 매우 소극적이고 제한되어 있다. 현재의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의 독서장(문제작품이나 읽는 : 이것을 서강대학교 도서관의 신숙원 선생은 독서관이라고 꼬집었더라마는)으로나 또는 입시준비를 위한 학습장(교실의 연장인)으로 밖에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일선 학교의 교사나 간부(교장, 교감등)으로부터 교육 또는 문교행정의 당국자들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교육자들이 이로서 만족하고 있을 만큼 이들의 도서관관이 전현대적이라는 것이다. 독서관으로나 입시공부를 위한 학습실로서의 기능은 도서관 기능의 부분집합이요 절대로 전체집합이 못 되는 것이다. 오늘날의 학교도서관을 보다 차원 높은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내일의 주인공들이 될 다음 세대들에게 내일의 사회를 명백하게 볼 수 있도록 전개시켜 주는 동시에 교사들에게 내일을 인식하고 교수할수 있도록 제반자료를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제공해 주어야 하겠다.

학교도서관의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반사람 몫의 사서교사와 사무직원 한사람에 약간명의 학생 도서위원의 인력으로는 그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 나아가기 어렵다.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정보의 수집과 정리, 기술적인 도서의 정리, 이용자들의 문의에 폭넓게 응할수 있는 참고업무, 미

숙한 학생들에 대한 이용 지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사회상에 대한 여러가지 자료의 전시, 독서 및 독서능력의 지도 등은 어느 하나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분야이며 사서교사 혼자서 감당 하기란 너무나도 벅찬 일일 뿐만 아니라 능률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위해서도 이들의 업무는 당연히 분담 하는것이 옳을 것이다. 물론 이 모든 직원을 도서관의 전임직원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교사를 도서관에 배치하여 학교도서관의 기구를 확대시키므로써 가능한 일이라고 보겠다.

교육이란 행위는 오늘에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내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근시안적인 편견이 내일의 주인공인 다음세대의 길을 가로 막아서는 안 될 것이며 감정이나 감상이 진리처럼 제공되어서는 더욱 안 될 것이다. 사소한 일이 중요한 일인 양 강조되고 있으면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 등한시 되어서야 국가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학교도서관은 학교교육의 중추적 기관이다. 교육구조의 혁신과 이를 위한 과감한 교육투자가 있어야 하겠으며 문교당국에서는 이 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시책의 수립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책속에 있는 길
읽으면 나의 길
독서하는 국민
발전하는 국가

● 會員倍加 運動을 展開하고 있습니다.

圖書館法에 의하여 設立된 國內唯一의 圖書館聯合體인 本協會는 全國에 있는 보다 많은 圖書館 및 圖書館人들이 本會 趣旨에 贊同하여 參與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會員 여러분께서는 아직 加入치 않고 있는 圖書館이나 司書에게 會員加入을 勸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會員의 種類

- 個人會員 : 圖書館職員 및 圖書館學을 履修한 사람
- 團體會員 : 圖書館, 學校 기타 圖書館 施設을 가진 團體

入會節次

所定樣式에 의한 入會 申請書를 記載 捺印하고 會費를 納付하면 會員證을 交付받게 됨.